

글로벌화와 표준화



기술표준원장 김동철

02)509-7201 dckm@ats.go.kr

요사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말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모든 산업과 우리의 행동준거에 이르기까지 세계전체가 국제화된 하나의 표준 즉, 글로벌 스탠더드로 맞추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으로 작아지고 있으며 시장은 WTO 체제하의 개방된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되고 있다.

미국이 유일한 슈퍼파워로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은 영어로 사실상 단일화되었다. 이러한 단일화된 세계를 움직이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위력이 우리옆에 와 있고 특히, 우리산업과 기술을 지배하는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표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무역상의 기술장벽을 없애고 무역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일치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의하였다. 즉, 각국의 국가표준을 단일화된 국제표준으로 일치화 함으로써 상품의 교역장벽을 없애지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표준을 차지하는 자는 세계시장을 지배

하고 그렇지 못한자는 도태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술이 우수하고도 표준전쟁에서 패한 β -max 방식의 비디오테이프는 시장에서 사라졌고 표준전쟁에서 승리한 VHS 방식의 비디오테이프는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첫째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을 조기에 국제표준과 일치시키고 아직 도입되지 못한 국제표준을 조기에 도입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40년간 이루지 못한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 일치화 작업을 금년 상반기까지 끝내고 연말까지는 국제표준 3,000종을 직도입하여 국가표준의 수를 18,000종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독일의 26,600종, 러시아 23,000종, 영국의 19,129종에 비하면 아직 숫적으로 부족하지만 전력을 투구하여 앞으로 3년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지만 국제표준이 없는 기술에 대해서는 일류선진국의 국가표준을 선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둘째로 우리도 이제 국제표준의 메이커로 등장하는

길이다. 국제표준 18,000여종 중에 우리기술이 겨우 61종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보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유기형광(EL), 액정화면(LCD) 등 우리가 개발한 세계일류 기술을 하루속히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여야만 세계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다.

영어협상 능력이 뛰어난 분야별 전문가를 국제표준화 기구의 각종 기술위원회에 많이 보내고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적극 설명하여야만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국가표준이 적극 기여토록 하여야한다. 지금까지 공산품 위주의 국가 표준에서 이제는 관광, 이사, 택배 등 서비스산업에까지 국가표준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의 생활화를 위해서 특히 서비스산업의 표준화는 사급하다.

동서양의 의식과 문화차이, 교육과 생활의 수준차, 까다로운 입맛과 기호 등으로 서비스 표준의 제정에 많은 애로가 있으나 등급별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하고 나머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류 선진국의 서비스 국가표준이 제정되던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여 가능한 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무역상 기술장벽타개를 위한 제반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안전과 위생,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한 기술장벽은

계속 높아가고 있다.

예를들면 섬유 제품이나 생활용품의 발암물질 함유 여부, 염료와 방부제의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기술장벽이 그것이다. 이러한 무역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첨단기술개발을 사전 기획하고 시기에 맞춰 적극 대응하는 길이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값싼 동남아 제품이 소비자의 안전이나 위생, 환경 등에 유해하지 않은지 여부를 검토, 표준화하고 이를 평가하여 유해제품의 수입을 억제할 계획이다.

표준을 둘러싼 선진 열강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다. 산업계, 학계, 연구계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여 날로 고도화 되어가는 기술의 표준화에 대비하고 새로 제정되는 국제표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세계시장이 우리의 몫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표준, 한번의 시험, 전세계 통용(One Standard, One Test, Accepted worldwide)이라는 슬로건은 우리에게 위협이 아닌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